

# 사랑을 따르자니

대한산업보건협회 / 윤 임 중



이제 며칠쯤 뒤 미국에서는 31억 개나 되는 유전자의 배열이 완전히 해독될 것이라는 소식이다. 배열이 해독되고 넓은 바닷가의 모래알 만큼이나 많은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내고 이를 근거로 유전자 치료법을 개발하여 인간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용되기까지는 아직도 머나먼 시간과 노력과 그리고 엄청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 분명한 일이다. 31억 개, 말이 쉽지 31억 개라는 숫자는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임이 틀림없다. 이렇듯 엄청난 숫자의 유전자로, 그것도 제각각의 기능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간이라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이렇듯 많은 유전자이지만 그것도 누구에게나 똑같은 것이 아니어서 민족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를 수도 있다니 지상에 살고 있는 50억이나 되는 인간들이 서로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사이고 보면 인간사라는 것이 단순할 리 있겠는가. 지상 인구의 100의 1도 못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우리나라만 두고 보더라도 미처 생각할 수도 없는 희안하고 놀랍고 한심한 일들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한다. 멀쩡한 사람들이 사이비종교에 홀딱 빠져서 가정을 버리고 어린 딸의 순결마저 바치는가 하면 세상이 망한다고 밤새워 울부짖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 말이다. 그녀가 세상의 사기꾼임을 모르는 이 없으려면 또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니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부모를 살해하는 자식들, 그것도 모자라 시체를 토막내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인간(?)아! 어찌란 말이나. 그러니 그 숫한 법이 필요할 것이고 법을 만드는 일은 금뺨지를 달고 잔뜩 어깨에 힘을 주고 대충

반말로 옥박지르는 이름하여 국회의원들의 몫이다. 그 많은 나라들이 허구현날 만들어 내도 모자랄 만큼 우리의 생활은 복잡하다는 말이다.

흔히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고 한다. 똑같이 나쁜 짓을 했는데 누구는 감방에 가고 누구는 버젓이 활보한다면 안 될 일이다. 법 앞에서의 평등! 매우 설득력이 있고 합리성이 있다는데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법 앞에서의 평등! 여기에는 적어도 그 법을 운영하는데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전제조건이 따라야 한다. 예외 없는 법은 없다는 말이 있듯이 법이라 해서 잣대로 금을 굶듯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예는 현실에 맞도록 운영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최근 나는 의도적으로 법 앞의 평등을 외면하는 행동을 했다. 퇴직 후 일주일에 4일간 근무하는 곳은 지방에 있는 종합병원이다. 어느 날 병원 입구에서 시덥지 않은 공사가 시작되는가 싶더니 여기저기 장애인을 위한 표식물이 부착되었다. 위치에 따라 모양과 크기가 서로 다르긴 하지만 셋노란 색깔에 등글게 불거져 나와 밟으면 쉽게 감촉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병원현관, 화장실과 승강기 앞 그리고 계단의 위와 아래쪽에 부착되었다. 시각장애자를 위한 배려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장애인을 위한 배려. 여기에 토를 달 의도는 전혀 없다. 요는 이런 배려가 현실에 맞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 실용성이야 어떻든 공공건물에는 모조리 부착하도록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 표식판을 부착하고 한 시간이 못되어 입원환자의 불평이 터져 나왔다. 내용인즉, 수액을 풀대(수액을 매달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한 일종의 받침대)에 매달고 화장실에 가거나 승강기를 이용할 때 풀대바퀴가 걸려 매우 위험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시험해 보았다. 풀대 밑에 달린 바퀴는 아주

적어서 울퉁불퉁한 표식물 위에서 잘 굴러가지 않는다. 더욱이 환자들은 풀대의 윗쪽을 잡고 밀고 다니기 때문에 바퀴가 구르지 않으면 넘어지기 십상이다. 관계부서장을 불러 내용을 알아보았다. 관계부처의 지시공문에 의한 것이란다. 화장실과 승강기 앞의 부착물은 풀대가 통과할 수 있는 공간을 남기고 한쪽에 치우쳐 부착하도록 지시하였다. “지시대로 안하면 야단맞을 텐데요.”,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내가 질테니 곧 고치세요.” 그래서 우리 병원은 당국의 지시를 어기고 말했다. 또 웃기는 일은 부착물의 색깔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부착물은 셋노란 색깔이다. 이 부착물은 장애인 중에서도 시각장애자를 위한 조치이고 이 부착물을 이용해야 할 시각장애가 색깔을 구별할 리 만무하다. 주위의 색깔은 전혀 무시한 채 이것만이 셋노란 색깔이어서 현관에 들어서면 노란색만 확 눈에 들어온다. 이 병원은 300병상 규모이고 입원환자는 하루 평균 260명쯤 그리고 외래환자는 450명쯤 된다. 96년 3월에 개원했으니까 지금까지 줄잡아 54만 명의 외래환자가 우리 병원을 찾아온 셈이 된다. 개원할 때부터 지금까지 원무과에서만 일한 직원 말에 의하면 시각장애자는 단 한명도 없었다니 이 부착물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얼핏 수궁이 가지 않는다. 이 병원은 본원과 똑 떨어진 곳에 300명쯤 되는 산재병동이 별도로 있고 이 산재병동은 직업병인 진폐환자 전용건물이다. 진폐증은 설명할 필요 없이 먼지가 발생하는 작업장에서 장기간 근무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직업병이다. 이 병동에도 똑같은 위치에 이 표식물이 부착되어 있다. 진폐증환자를 관리한지 30년이 넘었지만 이 노란색 표식물을 필요로 하는 환자는 한명도 없었다. 유비무환이다. 몇십 년에 단 한명만을 위해서라도 설치해야 한다면 할말은 없다. 그러나! 